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The Ecological Variable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경 님**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essor : Lee, Kyung-Nim

<Abstract>

The Ecological variables studied in relation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ere organisms(grade, sex, perceived competence, aggression and withdrawal), microsystems(parental support, marital conflict and supervision, peer victimization and perceived teacher attitude), mesosystems(family-peer relationships, family-school relationships) and the exosystem(neighborhood environment). The sample consisted of 565 fifth and sixth grade children. Instruments were the School Adjustment Scale and Index of organisms, microsystems, mesosystems, and exosystem variables.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frequency, percentage,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everal major results were found from the analysis. First,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perceived competence, parental support and supervision, perceived teacher attitude, family/peer and family/school relationships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but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grade, aggression, withdrawal and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peer victimization. Secon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child's relationship with teacher, his/her academic adjustment and satisfaction in school was perceived teacher attitude. And the most important variable predicti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school was perceived social competence.

▲주요어(Key Words) : 학교생활적응(school adjustment),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

I. 서 론

학교는 학령기 아동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활의 장이다. 무엇보다 아동은 학교에서 정규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문제해결기술, 다양한 원리와 방략, 규칙들을 학습하므로 학교는 학령기 아동의 인지 및 상위 인지적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Ceci, 1991). 또한 아동은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 외에 비공식적 교육과정(informal curriculum)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고 대인관계기술을 익히며 사회관계 갈등에 대처하여 해결하는 방략들을 발달시키게 된다. 나아가 아동은 학교를 통하여 직업적 능력을 탐색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를 익히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게 된다. 이처럼 학교는 학령기 아동의 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며 사회화 과정의 대행자(agent of socialization)이다(Shaffer, 1999). 그러므로 아동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는 아동기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공모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이경님 (E-mail : knlee@dau.ac.kr)

며 나아가 청년기나 성인기의 성취, 직업적·사회적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agwell, et al., 1998).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학생의 학업 수행과 성취를 비롯한 인지적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적 측면의 학교적응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학교생활 적응은 단일 개념이라기 보다는 학교생활의 구성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학교생활 적응에는 아동의 특성과 학교 환경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Spencer, 1999, 문은식·김충희, 2002, 재인용) 학업적 적응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개인의 정서적 적응 등 다양한 영역의 적응도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생활 적응이란 교육적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데 필요한 아동의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인 영역의 학교생활에 대한 순응 혹은 적응 정도로 정의된다. 이때 학업적 영역은 수업참여도와 학업, 사회적 영역은 아동과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정의적 영역은 아동 개인적인 학교생활 만족도가 관련된다(문은식·김충희, 2002). 이에 근거하여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생활 적응으로 학업적인 성취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관계, 또래관계, 규칙 준수 및 학교생활 만족도 등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구성개념이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권영복, 2002; 노숙영, 1998; 문은식·김충희, 2002; Birsh & Ladd, 1996).

학교적응은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나 모든 아동이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보고들을 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10명 중 6명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선일보, 2002), 2001년부터 3년간 10만 3천 597명의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의 첫 번째 원인이 학교생활 불만족으로 밝혀졌다(부산일보, 2004).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부산에서 초중고 학생 중 3천 790명이 학교를 중도탈락 하였으며, 이들의 중도탈락 사유 중 부적응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일보, 2006).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많은 이해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생활의 부적응에 대한 중재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므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의의 있다고 본다.

학교생활 적응에 아동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요인을 모두 고려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분석에 유기체인 아동 특성과 체계적인 환경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총체적 접근의 생태학적 체계 관점(Brofenbrenner, 1979, 1993)을 도입하고자 한다.

유기체 변인이란 유기체인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의미한다. 유기체 변인으로 성, 연령과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들 수 있다(Vasta et al., 2004). 먼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송자, 2005; 신진희, 2005; 이수경, 2004)로 일관성이 없었다. 연령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검토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낮아진다는 연구(채경림, 2004), 4, 5 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학교생활 적응의 일부 요인에서 더 잘 적응하나 전체 학교생활 적응은 학년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와 학교규칙 적응 외에 다른 하위 요인에서 5학년과 6학년 아동 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김송자, 2005)도 있었다. 이처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학년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일관성 없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아동 특성의 하나가 유능감이다. 유능감은 다양한 성취영역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대한 지각과 그 평가를 의미한다(서미정·김경연, 2000). 유능감은 아동의 학업성취, 행동과 심리적 적응의 모든 측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Shaffer, 1999) 학교생활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유능감 혹은 자아존중감은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는 변인들 중의 하나였다. 이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학업, 친구, 가정, 신체외모, 성격, 신체능력 및 교사 관련 자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진희, 2005).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강종훈, 2000; 이훈진, 1999). 이러한 결과로써 유능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주요한 예측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능감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지지되고 있으므로(서미정·김경연, 2000; 이경님, 2008; Harter, 1988) 이에 근거하여 유능감의 하위요인별 구성, 즉, 학업, 사회 및 운동적 유능감의 어느 영역이 아동의 학교생활의 각 구성 하위 영역의 적응에 상대적으로 중요한지를 검토하는 연구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유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아동이 지니고 있는 행동문제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중요한 특성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령기 아동이 자신의 행동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행동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심각한 학교 부적응을 표출하게 된다. 위축행동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행동이 느리거나 사회적으로 수줍어하고 움츠려드는 특성을 보이는 행동문제이다. 이러한 위축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므로 위축된 아동은 교사나 친구 등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며 소극적인 학업과 위축된 학교생활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

면 2학년과 5학년 아동 모두 위축행동과 교우관계, 교사관계, 성적 등 학교생활간의 부적관계가 보고되었다(옥경희 등, 2002).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하는 또 다른 행동문제는 공격행동이다. 또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며 말다툼, 싸움과 반항행동을 많이 보이는 공격행동은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전형적인 부적응 행동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공격성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규칙의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경님, 2006).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는 가족, 친구와 학교의 직접적인 환경이다.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된 환경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 실제로 미시체계 변인과의 관련 연구들이 가장 많았다. 아동 발달과 적응에 가장 직접적이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 중 먼저 가족의 물리적 환경 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환경 수준이 높을수록(김덕건, 1998; 박소혜, 1995) 월소득이 많을수록(정미영・문혁준, 2007) 아동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유무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노미숙, 2003; 정미영・문혁준, 2007)도 있었다. 가족의 중요한 심리적 환경인 부모로부터의 사랑, 관심,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지지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면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은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습적응 및 학내생활에 잘 적응하며(정미영・문혁준, 2007), 유사하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민주적일수록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윤자, 2004). 또한 부모가 아동이 어떤 또래들과, 어디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아동의 생활과 행동에 관심을 보이며 적절하게 지도하고 감독할 때 아동은 바람직한 행동과 적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감독은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과 적응을 위한 중재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으나 부모감독과 중학생의 행동문제와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황숙영, 2007)는 부모감독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부모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항상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권영옥・이정덕, 1996)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가정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써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지각 할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이진숙・정혜정, 2004; 정유진, 2000).

학령기의 대부분의 아동은 많은 시간을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하게 된다. 또래는 아동의 사회화의 중요한 대행자이므로 또래로부터의 수용과 정서적 지지는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haffer, 1999). 그러나 또래로부터 거부되고 공격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낮은 자아존중감, 심리적 상처와 함께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Parker & Asher, 1987). 실제로 또래공격피해는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가 학교생활 부적응의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어(강수령, 2001; 최진희, 2000) 또래로 부터의 공격피해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위험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또래와 함께 교사는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교사가 아동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은 학교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의 아동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를 검증한 한 고전적인 연구(Rosenthal & Jacobson, 1968)에서 유추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교사로부터 잘 할 것이라고 기대 받은 학생들이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 받은 학생들보다 학교에서의 수행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사의 아동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가에 따라 학업성취나 수행이 달라짐을 보이고 있다(이상숙, 1998; Jussim & Eccles, 1992; Weinstein et al., 1987). 교사의 기대나 태도는 아동의 학업적인 수행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의 결과에서 아동이 교사의 자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 할수록, 또한 교사지지가 높다고 지각 할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영복, 2002; 이수경, 2004; 정미영・문혁준, 2007). 이로써 교사의 아동에 대한 기대와 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요소간의 상호작용의 빈도, 질 및 관계를 의미한다. 미시체계 요소들이 유사한 가치관과 태도를 보일 때, 또한 이들 간의 강하고 지지적인 관계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와 교사의 아동의 학업활동에 대한 태도의 일치와 협조 정도가 아동의 학교수업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Luster & McAdoo, 1996)되고 있으며 부모들이 아동의 학교활동에 관여할 때 아동은 학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밝혀지고 있다(Connel et al., 1994). 이는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아동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가정과 친구의 관계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아동의 친구와의 관계, 활동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이들을 지지해 줄 때 아동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이를 검증한 연구는 없어 아동의 가정과 친구의 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체계는 생태적 체계에서 세 번째 환경으로 아동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아동의 성장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면지역 보다 시지역의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이 높다는 연구(채경림, 2004)가 있었다. 유사하게 집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이 학교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김기형, 2006)가 있었다. 이로써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성이 있으리라 유추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아동 특성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환경 모두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들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 특성이나 미시체계의 일부 변인들에 제한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최근 학교생활은 단일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성하위영역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어(문은식 · 김충식, 2001) 이들 하위영역에 따라 관련변인이 다른지 검토함도 필요하다. 즉 아동의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의 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토대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 적응에 대한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및 외체계 변인의 관계와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통합적인 이해와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학교생활(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 적응에 대한 유기체 변인(성, 연령, 유능감, 행동문제), 미시체계 변인(부모지지, 부부갈등, 또래공격피해, 교사태도지각), 중간체계 변인(가정-친구관계, 가정-학교관계) 및 외체계 변인(지역사회환경)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및 외체계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어떠한가?

Ⅱ.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공립초등학교 3개교에 재학 중인 565명의 아동이다. 이 중 5 학년은 272명(48.1%), 6학년은 293명(51.9%)이고 남아 306명(54.2%), 여아 259명(45.8%)이다. 이들 아동의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은 41~45세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36~40세가 23.0%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41~45세가 32.6%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45.8%, 초대졸 이상이 40.4%,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51.3%, 초대졸 이상이 34.6%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 · 회사원 · 공무원이 37.7%, 피고용기능직 · 근로자가 34.0%, 서비스 · 자영상공업이 13.0%, 일반전문직 · 고위관리직이 3.9%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직업있음이 55.3%, 직업 없음이 35.2%로 나타났다. 아동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부유한편 22.1%, 보통이다 66.9%, 가난한 편 10.7%로 지각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및 외체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영복(2002)의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의 하위요인에서 각 6문항씩을 선정하여 모두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사관계 관련문항은 '나는 선생님을 잘 따른다' '선생님께서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교우관계 관련문항은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학업 관련문항은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수업시간에 공부에 열중한다', 교내생활 관련문항은 '나는 학교생활이 보람 있다' '나는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평정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교사관계 .89, 교우관계 .89, 학업 .80, 교내생활 .87, 전체 .94로 나타났다.

2) 유기체 변인

(1) 유능감

아동의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미정・김경연(2000)의 아동의 유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유능감 5문항, 사회적 유능감 7문항, 운동적 유능감 4문항을 선정하여 모두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평정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 사회 및 운동적 유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학업적 유능감 .79, 사회적 유능감 .86, 운동적 유능감 .90으로 나타났다.

(2) 위축과 공격행동

아동의 위축과 공격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주(1997)의 행동문제 척도와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척도를 참조하여 위축 6문항, 공격 6문항 모두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3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과 공격행동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위축 .73, 공격 .74로 나타났다.

3) 미시체계변인

(1) 부모지지

아동이 지각한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의 사회적지지 척도에서 부모지지에 관련된 7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2) 부모감독

아동이 지각한 부모감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준호와 이동원(1996)의 부모감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범위로 평정 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의 감독 수준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3)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권영옥・이정덕(1996)의 부부갈등척도 중 일부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한 박민정(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모두 7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범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긍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4) 또래 공격피해

아동이 지각한 또래 공격피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춘아(2001)의 피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이춘아가 Perry 등(1988)의 또래지명 척도와 Crick과 Grotpeter(1995)의 또래 보고식 사회경험질문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 적절하게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자기보고식으로 재구성하여 타당화 하였다. 본 척도는 또래로부터의 직접적 공격피해 6문항, 간접적 공격피해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또래 공격피해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5) 교사태도

아동이 지각한 자신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허은호(2001)의 교사태도지각척도 중 일부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아동 개인에 관한 관심, 아동의 능력에 대한 태도, 아동의 인성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에서 4문항씩 모두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자신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4) 중간체계변인

(1) 가정-친구관계

아동이 지각한 가정과 친구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민정(2003)이 Mounts(2000)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가정-친구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은 제외하고 모두 5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구와 가정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9로 나타났다.

(2) 가정-학교관계

아동이 지각한 가정과 학교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계숙(1990)의 척도와 최명선(1998)의 척도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박민정(2003)의 가정-학교관계 척도에서 7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문항은 제외하고 모두 6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평점 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 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5) 외체계변인

(1) 지역사회환경

아동이 지각한 지역사회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Rinner (1998)의 척도를 참조하여 박민정(2003)이 사용한 척도를 기초로 하고 김기형(2006)의 척도를 참조하여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평점척도로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지역사회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7년 12월 10일에서 21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부산시의 사하구, 북구 및 연제구의 각 1개교씩 3개 공립초등학교를 임의 표집 하였으며, 이들 세 학교에서 5학년과 6학년의 각 11학급씩 모두 22학급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뒤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아동에게 질문지가 배부되고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된 자료는 제외하고 모두 565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간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및 외체계 변인의 관계

1)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유기체 변인과의 관계

아동의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 적응에 대한 아동의 학년, 성, 학업, 사회 및 운동적 유능감과 위축 및 공격 행동문제의 유기체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아동의 학년은 전체 학교생활(r=-.144, p<.01) 및 하위요인인 교사관계(r=-.125, p<.01), 학업(r=-.124, p<.01), 교내생활(r=-.125, p<.01) 적응과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성은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적응(r=.107, p<.05)과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학업, 사회 및 운동적 유능감은 전체 학교생활(학업;r=.471, p<.001, 사회;r=.611, p<.001, 운동;r=.339, p<001), 교사관계(학업;r=.270, p<.001, 사회;r=.367 p<.001, 운동;r=.217, p<001), 교우관계(학업;r=.390, p<.001, 사회;r=.771, p<.001, 운동;r=.418, p<.001), 학업(학업;r=.479, p<.001, 사회;r=.413, 운동;r=.243, p<.001), 교내생활(학업; r=.398, p<.001, 사회;r=.542, 운동;r=.268, p<.001) 적응과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아동의 위축 및 공격 행동문제는 전체 학교생활(위축;r=-.379, p<001, 공격;r=-.365, p<.001), 교사관계(위축;r=-.184, p<001, 공격;r=-.322, p<.001), 교우관계(위축; r=-.562, p<001, 공격;r=-.213, p<.001), 학업(위축;r=-.269, p<001, 공격;r=-.313, p<.001), 교내생활(위축;r=-.335, p<.001, 공격; r=-.305, p<.001) 적응과는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즉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교사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관계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의 학업, 사회 및 운동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위축 및 공격 행동문제가 적을수록 아동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미시체계 변인과의 관계

아동의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 적응에 대한 미시체계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유기체 변인과의 관계

	유능감					행동문제	
	학 년	성	학 업	사 회	운 동	위 축	공 격
전 체	-.144**	.058	.471***	.611***	.339***	-.379***	-.365**
교사관계	-.125**	.107**	.270***	.367***	.217***	-.184***	-.322***
교우관계	.011	.030	.390***	.771***	.418***	-.562***	-.213***
학업적응	-.124**	.038	.479***	.413***	.243***	-.269***	-.313***
교내생활	-.125**	.038	.398***	.542***	.268***	-.335***	-.305***

*p<.05, **p<.01, ***p<.001
(가변인처리, 성: 남아 0 여아 1)

<표 2>에 의하면 아버지의 학력과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r=.148, p<.001), 교사관계(r=.107, p<.05), 교우관계(r=.107, p<.05), 학업(r=.132, p<.01), 교내생활(r=.160, p<.001)과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r=.106, p<.05), 교사관계(r=.100, p<.05)와 교내생활(r=.122, p<.01) 적응과 정적관계가, 어머니 직업유무와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r=-.115, p<.01), 학업(r=.-130, p<.01) 및 교내생활(r=-.123, p<.01) 적응은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표 2>에 의하면 부모지지와 부모감독 및 교사태도지각은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부모지지;r=.390, p<.001, 부모감독;r=.425, p<.001, 교사태도;r=.679, p<.001), 교사관계(부모지지;r=.330, p<.001, 부모감독;r=.315, p<.001, 교사태도;r=.724, p<.001), 교우관계(부모지지;r=.324, p<.001, 부모감독;r=.365, p<.001, 교사태도;r=.366, p<.001), 학업(부모지지;r=.327, p<.001, 부모감독;r=.342, p<.001, 교사태도;r=.582, p<.001), 교내생활(부모지지;r=.369, p<.001, 부모감독;r=.352, p<.001, 교사태도;r=.553, p<.001) 적응과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부모의 부부갈등과 또래공격피해는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부부갈등;r=-.333, p<.001, 또래공격피해;r=-.480, p<.001), 교사관계(부부갈등;r=-.230, p<.001, 또래공격피해;r=-.266, p<.001), 교우관계(부부갈등;r=-.297, p<.001, 또래공격피해;r=-.624, p<.001), 학업(부부갈등;r=-.267, p<.001, 또래공격피해;r=-.338, p<.001), 교내생활(부부갈등;r=-.301, p<.001, 또래공격피해;r=-.443, p<.001)과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 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의 아동이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보다는 대졸 이상의 아동이 교사관계와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직업이 없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아동보다 학업과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이 부모지지와 부모감독을 높게 지각하고 교사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아동이 부모의 부부갈등과 또래공격피해가 적다고 지각할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 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중간체계 변인과의 관계

아동의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 적응에 대한 중간체계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가정-친구관계와 가정-학교관계는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가정-친구관계;r=.415, p<001, 가정-학교관계;r=.425, p<001) 교사관계(가정-친구관계;r=.296, p<001, 가정-학교관계; r=.316, p<001), 교우관계(가정-친구관계;r=.412, p<001, 가정-학교관계;r=.313, p<001), 학업(가정-친구관계;r=.306, p<001, 가정-학교관계;r=.353, p<001) 및 교내생활(가정-친구관계;r=.363, p<001, 가정-학교관계;r=.359, p<001) 적응과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즉 가정과 아동의 친구관계, 가정과 아동

<표 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미시체계 변인과의 관계

	가족변인						친구변인	학교변인
	부학력	모학력	모직업	부모지지	부모감독	부부갈등	또래공격피해	교사태도지각
전 체	.148***	.106*	-.115**	.390***	.425***	-.333***	-.480***	.679***
교사관계	.107*	.100*	-.076	.330***	.315***	-.230***	-.266***	.724***
교우관계	.107*	.042	-.037	.324***	.365***	-.297***	-.624***	.366***
학업적응	.132**	.059	-.130**	.327***	.342***	-.267***	-.338***	.582***
교내생활	.160***	.122**	-.123**	.369***	.352***	-.301***	-.443***	.553***

*p<.05, **p<.01, ***p<.001
(가변인처리, 부모학력: 고졸이하 0 대졸이상 1, 모직업: 무 0 유 1)

<표 3>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중간체계 변인과의 관계

	가정-친구관계	가정-학교관계
전 체	.415***	.425***
교사관계	.296***	.316***
교우관계	.412***	.313***
학업적응	.306***	.353***
교내생활	.363***	.359***

***p<.001

의 학교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아동은 학교에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전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외체계 변인과의 관계

	지역사회환경
전 체	.503***
교사관계	.373***
교우관계	.406***
학업적응	.388***
교내생활	.438***

***p<.001

4)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외체계 변인과의 관계

아동의 학교에서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 적응에 대한 외체계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지역사회환경은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r=.503, p<.001), 교사관계(r=.373, p<.001), 교우관계(r=.406, p<.001), 학업(r=.388, p<.001) 및 교내생활(r=.438, p<.001) 적응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이 지역사회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이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024	1																
3	-.016	-.130**	1															
4	.008	.051	.451***	1														
5	-.028	-.119**	.300***	.529***	1													
6	-.021	-.023	-.302***	-.562***	-.514***	1												
7	.034	-.188***	-.122**	-.174***	-.016	.201***	1											
8	.011	-.010	.202***	.148**	.087*	-.079	-.044	1										
9	-.035	-.017	.134**	.141**	.054	-.063	.013	.613***	1									
10	.001	-.065	-.051	-.055	.047	.016	.102*	.021	.059	1								
11	-.086*	-.099*	.243***	.287***	.215***	-.196***	-.138**	.128**	.063	.028	1							
12	-.044	.048	.286***	.340***	.226***	-.250***	-.134**	.122**	.082	-.073	.471***	1						
13	.059	-.004	-.155***	-.252***	-.098*	.208***	.196***	-.056	-.039	.017	-.412***	-.350***	1					
14	-.030	-.111**	-.265***	-.534***	-.292***	.568***	.311***	-.030	.027	-.014	-.280***	-.289***	.298***	1				
15	-.076	.051	.362***	.428***	.292***	-.240***	-.290***	.094*	.073	-.091*	.363***	.315***	-.220***	-.285***	1			
16	-.119***	.082	.194***	.426***	.260***	-.288***	-.178***	.090*	.048	-.078	.469***	.552***	-.442***	-.347***	.336***	1		
17	-.187***	-.080	.359***	.353***	.254***	-.241***	-.126**	.150**	.144**	-.075	.345***	.412***	-.301***	-.216***	.397***	.489***	1	
18	-.105*	-.021	.317***	.386***	.289***	-.278***	-.200***	.031	.053	-.035	.370***	.363***	-.317***	-.287***	.388***	.454***	.463***	1

1. 학년 2. 성 3. 학업유능감 4. 사회유능감 5. 운동유능감 6.위축행동 7.공격행동 8.부학력 9.모학력 10.모직업유무 11.부모지지 12.부모감독 13.부부갈등 14.또래공격피해 15.교사태도지각 16.가정-친구관계 17.가정-학교관계 18.지역사회환경
(가변인처리, 성: 남아 0 여아 1, 부모학력: 고졸이하 0 초대졸이상 1, 모직업유무: 무 0 유 1)
*p<.05, **p<.01, ***p<.001

2.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유기체, 미시체계, 중간체계 및 외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중간체계 변인 및 외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킬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독립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001-.613의 범위에 있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회귀분석에 투입된 각 변수의 VIF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1.060~2.619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독립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 적응에 교사태도 지각(β=.377, p<.001)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사회적 유능감(β=.289, p<.001), 학업적 유능감(β=.130, p<.01), 또래공격피해(β=-.122, p<.01), 공격행동(β=-.120, p<.001), 지역사회환경(β=.093, p<.05), 부모감독(β=.091, p<.05), 학년(β=-.086, p<.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66.3%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교사관계 적응에 교사태도지각(β=.656, p<.001)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 공격행동(β=-.117, p<.01), 부모지지(β=.088, p<.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58.6%이었다. 또한 아동의 교우관계 적응에 사회적 유능감(β=.618, p<.001)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 또래공격피해(β=-.233, p<.001), 성별(β=-.116, p<.001), 지역사회환경(β=.072, p<.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67.6%이었다. 아동의 학업 적응에 교사태도 지각(β=.330, p<.001), 학업적 유능감(β=.284, p<.001), 공격행동(β=-.106, p<.05), 모 직업

<표 6>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생태학적 변인	학교생활적응				
	전 체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적응	교내생활
유기체변인					
학년	-.086**	-.042	.007	-.067	-.080*
성	-.001	-.068	-.116***	.016	-.026
학업유능감	.130**	-.016	.006	.284***	.088
사회유능감	.289***	.102	.618***	.089	.251***
운동유능감	-.060	-.026	-.075	-.092	-.050
위축행동	.037	.075	-.063	-.003	.050
공격행동	-.120***	-.117**	-.049	-.106*	-.099*
미시체계변인					
부학력	.037	.036	.040	.022	.070
모학력	-.006	.030	-.048	-.044	-.005
모직업	-.059	-.017	.009	-.087*	-.077*
부모지지	.035	.088*	.018	.076	.049
부모감독	.091*	.064	.065	.033	.050
부부갈등	-.062	-.018	-.025	-.070	-.062
또래공격피해	-.122**	.017	-.233***	-.057	-.177***
교사태도지각	.377***	.656***	-.013	.330***	.267***
중간체계변인					
가정-친구관계	-.053	-.079	-.007	-.025	-.032
가정-학교관계	-.033	-.038	-.071	-.047	-.010
외체계변인					
지역사회환경	.093*	.038	.072*	.042	.057
상 수	73.468	9.198	14.728	14.917	16.491
D-W계수	1.996	1.776	1.997	1.911	1.996
R^2	.663	.586	.676	.466	.480
F	42.535***	30.586***	45.140***	18.878***	19.910***

D-W계수 : Durbin-Watson계수
*p<.05, **p<.01, ***p<.001
(가변인처리, 성: 남아 0 여아 1, 부모학력: 고졸이하 0 초대졸이상 1, 모직업: 무 0 유 1)

유무(β=-.087, p<.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46.6%로 나타났다. 아동의 교내생활 적응에 교사태도 지각(β=.267, p<.001)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사회적 유능감(β=.251, p<.001), 또래공격피해(β=-.177, p<.001), 공격행동(β=-.099, p<.05), 학년(β=-.080, p<.05), 모 직업 유무(β=-.077, p<.05)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48.0%로 나타났다.

이로써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예측 변인은 구성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교사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전체 학교생활 적응에 교사태도 지각이, 교우관계 적응에는 사회적 유능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령, 성, 유능감, 행동문제의 유기체 변인, 부모의 지지와 감독, 부부갈등, 또래공격피해, 교사태도 지각의 미시체계 변인, 가정-친구관계와 가정-학교관계의 중간체계 변인과 지역사회 환경의 외체계 변인의 관계 및 이들 생태학적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교사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전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낮아진다는 연구(채경림, 2004)와 대체로 일치하였으며 5학년 아동이 6학년보다 학내생활에서 더 잘 적응하나 전체 학교생활 적응에 학년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로써 5학년이 6학년 아동보다 학업, 교내생활 등 학교생활의 일부 요인 또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과 함께 대인관계의 폭도 넓어지면서 저학년보다 스트레스를 점차 많이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이 낮아지기 때문이라 유추된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관계에 더 잘 적응하였으며 교우관계, 학업, 교내생활 적응에서는 여아와 남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관계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김송자, 2005)와 일치하였으며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서 여아와 남아 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와는 대체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남아와 여아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교사관계와 같은 일부 하위 요인에 따라 성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학업, 사회 및 운동적 유능감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 학교 및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연구(김송자, 2005; 신진희, 2005)와 일치하였다. 이는 자신의 학업, 사회 및 운동적 능력을 높게 지각하고 이에 대하여 만족하는 아동이 학교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생활하며 잘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아동의 유능감은 학교생활 적응의 긍정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축 및 공격행동이 많을수록 아동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 모두 위축행동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낮게 나타난 연구(옥경희 등, 2002), 아동의 공격성과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및 규칙의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관계가 나타난 연구(이경님, 2006)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일치는 아동의 위축과 공격의 행동문제는 학교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된 미시체계 변인 중 먼저 가족 변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난 연구(신진희, 2005)와 일치하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관계와 학습적응에서 높게 나타난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로써 학력이 높은 아버지의 아동이 학교생활에 대체로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교사관계와 교내생활 및 전체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난 연구(신진희, 2005)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아동이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아동보다 학업적응과 교내생활을 비롯한 전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직업유무의 관계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직업유무 보다는 직업의 유형이나 직업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은 부모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아동의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습적응 및 학내생활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관계가 나타난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와 일치

하였으며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수경, 2004)와도 유사하였다. 이는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지지를 지각하는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 되어 학교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보이며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지지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가 자신의 생활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한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부모감독이 중학생의 행동문제와 부적관계가 있다는 연구(황숙영, 2007)와 유사하였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보이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 할 때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모감독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과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부모갈등과 학교생활 적응 간에 부적관계가 나타난 연구(이윤주, 2004)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부모의 부부 갈등은 아동의 불안과 위축의 내재적 문제행동 혹은 산만이나 공격의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권영옥・이정덕, 1996)에 비추어 볼 때 부부 갈등은 아동의 부적응 등 문제행동을 야기하므로 학교생활 적응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또래공격피해와 아동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수령, 2001; 최진희, 2000), 또래괴롭힘 경험의 아동이 낮은 학교선호도와 학교 회피를 보인다는 연구(Olweus, 1993)와 일치하였으며 친구지지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최지은, 2001)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또래로부터 거부되고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문제를 보이게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고 교사관계가 좋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았다는 연구(박은주, 2004; 정미영・문혁준, 2007),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신뢰감이 깊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높았다는 연구(최지은, 2001)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일치는 아동이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지각할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중간체계 변인인 가정과 친구 및 가정과 학교와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지각할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 및 교내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교사의 아동의 학업을 비롯한 학교활동에 대한 태도가 일치할 때 아동이 학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원만하게 적응한다는 연구(Luster & McAdoo, 1996)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아동이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 할 때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생활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친구와 가족이 원만하게 지낸다고 지각할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가정-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사회측정적 인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도금혜, 2006)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민정, 2003)에 비추어 보면 부모가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지해줄 때 아동의 바람직한 적응에 도움이 되어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체계 변인인 지역사회 환경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사회 환경은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가 없어 단정적인 해석은 어려우나 유사한 연구로 거주지 환경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주도적-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민정, 2003), 집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이 학교중도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김기형, 2006)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구성하위영역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교사관계, 학업적응, 교내생활 및 전체 학교생활 적응에는 공통적으로 교사태도가, 교우관계 적응에는 사회적 유능감이 나타났다. 먼저 아동이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교사태도가 교사관계, 학업적응, 교내생활 및 전체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아동의 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박은주, 2004), 교사와의 원활하고 신뢰있는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연구(최지은, 2001)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자신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교사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관계, 교내활동, 학교공부의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권영복, 2002)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아동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교사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학교생활에서 매일 상호작용하는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인성을 인정한다고 지각하면 아동은 자신감과 함께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이는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 능동적인 학업, 원만한 교내생활을

비롯한 바람직한 학교생활 적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에 교사연수나 교육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아동의 교우관계 적응에는 사회적 유능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교우관계 적응에 친구관련 자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연구(신진희, 2005)와 일치하였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은 교내생활과 전체 학교생활 적응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써 아동의 자신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지각은 학교에서 교우관계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적응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또래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적 유능감이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과 학업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교실에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업에 중요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아동의 학습수준에 적절하게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성취감을 갖게 하는 한편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방안은 학교에서 바람직한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또래공격피해는 아동의 전체 학교생활 적응과 교우관계 및 교내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괴롭힘의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강수령, 2001)와 일치하며 친구지지가 아동의 교우관계를 비롯한 학내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정미영・문혁준, 2007)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는 학교에서의 교우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야기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다. 즉 학교에서의 또래 지지는 아동이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면 또래공격피해 경험은 아동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위축과 불안을 야기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부적응 문제를 표출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친구로부터 수용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아동의 공격행동은 교사관계, 학업적응, 교내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공격 등 문제 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연구(옥경희 외, 2002)와 일치한다. 이로써 공격행동은 교사관계 적응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학업적응, 교내생활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 부적응을 야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공격행동문제는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떨어뜨리는 위험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격행동 등 문제행동의 수정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체계 변인인 지역사회 환경도 아동의 교우관계와 전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이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지역사회의 환경 혹은 심리적인 분위기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의 보호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감독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일상생활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는 부모들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훈련이나 프로그램에 부모참여와 자녀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이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관련지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일부 구성하위요인을 제외하고 5학년이 6학년보다 더 높고 남아와 여아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학업, 사회 및 운동적 유능감, 부모지지와 감독, 긍정적인 교사의 태도, 가정-친구관계, 가정-학교관계 및 지역사회 환경은 바람직한 요인이나 아동의 위축 및 공격행동, 부모의 부부갈등, 또래공격피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아동의 교사관계, 학업적응, 교내 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 적응에 교사의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교우관계 적응에 사회적 유능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요인과 함께 학업유능감, 또래공격피해, 공격행동, 지역사회환경, 부모감독, 학년이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다양한 생태학적 체계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시도하였으나 이들 변인의 측정이 아동의 주관적 보고에만 의존하여 그 결과가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친구, 교사 등의 보고도 함께 측정되어 아동의 생태학적 체계변인들간의 관계 및 해석이 객관적으로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관련 변인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중간체계 및 외체계 변인을 모두 다루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특히 외체계 변인은 아동이 지각한 지역사회 환경만을 선정하여 그 해석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외체계 변인을 비롯한 포괄적인 생태학적 체계 변인이 포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관련 변인의 관계만을 분석하고 있어 유기체 변인과 환경체계 변인이 어떻게 작용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가에 대한 경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체계 변인들의 직·간접적 영향 및 상대적 인과효과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의의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강수령(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종훈(2000).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영복(2002). **교사의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옥·이정덕(1996).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0),** 65-79.

김기형(2006).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도탈락 요인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덕건(1998).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송자(200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호·이동원(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미숙(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숙영(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금혜(2006). **청소년의 인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은식·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박민정(2003).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소혜(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적응 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주(200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일보(2004). 고교 중도탈락 3년 사이 7천여 명. 2004. 9. 18. 63면.

부산일보(2006). 지난해 학업중도 포기 3천 790명. 2006. 9. 22. 2면.

서미정·김경연(2000). 개인적 변인 및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1),** 45-57.

신윤자(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진희(2005). **학년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경희·김미해·천희영(2002). 조절력과 부정적정서 및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61-68.

이경님(2006). 아동의 개인, 가족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31-44.

이경님(2008). 아동의 개인 및 가족 변인과 교실의 심리사회적 환경이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2),** 207-221.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숙(1998). **교사의 행동에 대한 학생의 차별적 지각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경(2003).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경(2004).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주(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하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435-449.

이진숙·정혜정(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47-61.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훈진(1999).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계숙(1990). **도시와 농촌 아동의 학습준비도를 결정하는 생태학적 변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미영·문혁준(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정유진(2000). **청소년 학교 생활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선일보(2002). 수능성적 비관 여자 재수생 투신자살. 2002. 11. 7.

채경림(2004).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마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명선(1998). **경제위기하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의 구조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은(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현 ·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거리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은호(2001).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숙영(2007). **부모애착, 부모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Birsh, S. H. & Ladd, G. W.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school environment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 The role of teachers and peers. In K. R. Wentzel & J. Juvonen(Eds). *Social motivation : Understanding children's school adjustment(pp. 199-22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the family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2*, 723-742.

Bronfenbrenner, U. (1993). The ecology of cognitive development : Research models and fugitive findings. In R. H. Wozniak 4 K.W. Fisher(Eds). *Development in context* (pp. 3-44). Hillsdale. NJ : Erbaum.

Ceci, S. J. (1991). How much does schooling influence general intelligence and its cognitive components? A reassessment of the evi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7*, 703-722.

Connel, J. P., Spencer, M. B., & Aber, J. L. (1994). Education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493-506.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Harter, S. (1988). The constru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self : James and Colley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age,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43-69.)* New York : Springer-Verlay.

Jussim, I., & Eccles, J. S. (1992). Teacher expectations Ⅱ : construction and reflection of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47-961.

Luster, T., & McAdoo, H. (1996). Family and child influence on educational attainment : A secondary analysis of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data.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6-39.

Mounts, N. S. (2000). Parental management of adolescent peer relationship : What are its effects on friend selection? In Kerns, K. A., Contretras, J. M., & Nela-Barnett, A. M. (Eds). *Family and peers : Linking two social worlds*. Westport, praeger.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pp. 315-341)* NJ : Lawrence Eribaum Associates.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Perry, D. G., Kus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7-814.

Rinner, M. E. K. (1998). Social ecology model of adolescent interpersonal violence prevention. Indiana University Dissertation.

Rosenthal, R., & Jacobson, I. (1968). *Pygmalion in the classroom*.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Childhood & Adolescence.* Brooks/Cole.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Vasta, R., Miller, S.A., & Ellis, S. (2004). *Child Psychology(4th).*, John Wiley Sons. Inc.

Weinstein, R. S., Marshall, H. H., Sharp, I., & Botkin, M. (1987). Pygmalion and the student : Age and classroom differences in children's awareness of teacher expectations. *Child Development, 58*, 1079-1093.

□ 접 수 일 : 2008년 07월 11일
□ 심 사 일 : 2008년 08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9월 25일